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탄력받나

전북도, 문 대통령 공약사업에 신속 대응 나서...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미래형 신산업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을 위해 전북도가 신속 대응에 나섰다.

세만금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조성 및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선정한 전북도는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장과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원장, 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완성차업체 등 국가기관 및 산업체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북도는 세만금에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차 실증환경을 구축해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하는 복안을 구상하고 그 중 한 방안으로 3,000억원 규모의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중앙부처에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다.

또한 사업추진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국책사업화를 위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산업연구원을 용역수행 주관으로 하는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전략수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다.

착수보고회를 주재한 유희숙 국장은 "자동차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도는 상용차 생산거점이라는 산업적 특성과 세만금의 무한한 자원을 활용 4차산업 혁명과 미래 성장동력



전북 재난안전 포럼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성화'란 주제로 열린 제5차 전북 재난안전 포럼에 송하진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면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자율주행차 사업을 상용차 생산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세만금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정치권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도시 등 스마트코리아 구현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전북도에 특화된 상용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피해율이 높은 상용차에서 자율주행기술 적용이 더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상용차의 운행형태와 제원특성, 진동특성, 제동특성 등을 고려해 승용차 자율주행기술과 다른 상용차 맞춤형 자율(군집)주행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내의 상용차 산업현황 및 자율주행 기술개발 현황, 발전전망과 도가 가진 생산기반 등을 활용한 전략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만금이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산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산업연구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국내 산업경제 정책의 싱크

탱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국내의 산업·기술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수단 개발 경험이 풍부해 신뢰성 높고 타당성 있는 용역결과 도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산업정책 수립에 연구·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상용차 자율주행 산업 육성에 정부의 긴밀한 교섭역할을 수행해 전북도의 신산업 육성정책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8월까지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의 국책사업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청소년 문화 광장, 모여라! 즐겨라!

전라북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식 20일 개최

여성가족부,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전라북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식이 오는 20일 정주시 오거리문화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청소년의 바른 성장에 귀감이 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도모하기 위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에 선정된 수상자 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자립적, 종합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특기를 개발·체현하고 인성·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의 12개 지원동아리에게 선정 인증서와 함께 연간 110만원씩 지원도 하게 된다.

개막식 이후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 동아리 공연 및 다양한 체험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 청소년 및 지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행사에 관련된 문익은 전라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063-287-7930)로 하면 된다.

전라북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올 11월 초까지 총12회 정주시 오거리 문화광장 및 도내 일원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이번 어울림마당은 도내 11개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다.

청소년들에게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기회와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지방행정연수원, 북한이탈주민 정책과정 운영

지방행정연수원은 통일교육과정의 일환으로 17일~19일 '북한이탈주민 정책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의 목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을 제고하고, 공동체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생방

안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채용공무원과 담당자 등 16명이 교육생으로 참가해 남북한 공무원들이 소통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재용 기자

수산연구소, '어린 대하' 방류

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서해의 대표적인 특산종인 어린대하를 연안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대하는 포란된 어미대하로부터 수정란을 확보해 약 1개월간 약 1.2cm이상까지 성장시킨 것으로 1년후 약 20여원의 어업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대하는 만 1년생으로 방류 후 9월 중하순이면 크기 15~20cm까지 성장하고 월동장으로 이동하는 10월경까지는 방류해역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아 가을철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새우류인 대하는 맛이 좋은 고급 수산물로 고단백, 저칼로리·고식용으로 인기가 높고, 특히 갑각과 철분이 풍부하여 건강과 원기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도내 야생진드기 병원체 조사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객이 많아지고 진드기 밀도가 높아지는 5월에 참진드기를 채집해 병원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남과 제주지방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내에도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조사는 채집된 진드기를 종별로 분류하고 분류한 진드기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질병으로 잠복기(6~14일)가 지난 후 고열(38~40℃), 소화기증상을 나타내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질병이며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방법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 대만 수학여행단 유치 물꼬 터

지난 3월 팸투어 추진 성과로 '대중문화고등학교' 학생 64명 전북 방문

전북도는 지난 3월 해외 청소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대만 교육관계자 팸투어를 추진했다.

그 결과로 5월 중 대만 '대중문화고등학교' 수학여행단 64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만 '대중문화고등학교' 학생 64명은 15일부터 1박 2일 동안 전북을 방문해 경기전, 전통성당 등 한옥마을 일원을 둘러보며 한복 및 한국 음식을 통해 '한국체험 1번지' 전북에서 한국의 멋과 맛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에서의 1박 2일 일정이 포함된 이번 대중문화고등학교 한국 수학여행일정표는 '대만국제교육연맹 총연맹'에서 대만 내 전국 중·고등학교에 제공할 예정으로 대만지역 수학여행단 유치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북도는 대만 외에도 일본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여행사 상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지

자체-일본 여행사간 상담회'가 열릴 예정으로 이날 전라북도 수학여행 알리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을 방문하는 수학여행단의 안전을 위해 전북지역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수학여행 전담지도사를 배치, 전체 일정을 동행하며 전북의 학습관광자원을 설명하고 교사와 공동으로 학생을 인솔하는 한편, 야간 안전지도 등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의 근심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

다. 올해 전북도는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 전북의 수준 높은 문화공연 관람 기회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지원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수학여행 안내 콜센터를 통해 수학여행 코스,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궁금증을 윈스톱으로 해소해 학교 및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희기 관광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해외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전북 수학여행 세일즈 콜 등 지속적인 마케팅을 실시해 한국의 대표적인 수학여행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